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최차연	성 별	여성	출생연도	1941
면담자	정지선	소 속	미추홀 시민기록단	감독자	
면담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2 휴먼시아 1단지 115동 1501호	면담지원	송미정		
면담 일시	2025 년 7 월 10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51분 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3327				
구술 개요	구술자는 학익동에서 정착했던 시기와 계기, 학익동 거주지 근처의 풍경, 동양화학 인근 마을에서의 생활 모습, 남편(김성호)이 다녔던 카바이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 학익동에서 살았던 집, 집의 구조와 살림살이 장만에 대한 이야기, 남편(김성호)이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여성 노동자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 당시 생활사 이야기, 집을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살림을 불렀던 에피소드, 동양화학 인근 공장에 대한 기억, 자녀 양육 시절의 에피소드, 동양화학이 지역 주민에게 준 영향에 대한 생각,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 지금까지 유지하는 친목회 모임, 남편의 술자리, 옛 서창동 땅에 대한 기억, 집을 넓히기 위해 힘들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인터뷰 소회 및 안동 식혜와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 슬기롭게 지냈던 결혼 생활,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줬던 구술자의 시간과 노력,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술자의 이야기, 뜨개질 조장 시절의 에피소드 그리고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함				
주요 색인어	학익동, 동양화학, 카바이트 공장, 조선철강공업, 삼우운수, 인하대학교, 국민주택, 제재소, 우물, 공동 수도, 연탄, 똥꿀레, 안동, 호랑불, 담배공장, 급여, 꽃자리, 할부, 뱃머리집, 루뽕, 안동떡, 국민연금, 도나무 공장, 농약공장, 레떼루, 외상, 이자, 두부공장, 태광산업, 유공 저유소, 장미아파트, 새인천폴장, 청학폴장, 문학산, 도시락, OCI, 연탄 공장, 뜨개질 조장, 신포동, 부업, 친목회, 당구장, 막걸리문화, 보리사탕, 서창동 개발, 안동 식혜, 토마토 잼, 청력 보조금, 학익초등학교, 서인천 중학교, 송도고등학교, 여성 노동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학익동에서 정착했던 시기와 계기 - 1941년도에 안동에서 태어나 29세에 인천 학익동으로 이주함 - 친정 오빠가 동양화학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소개로 인천으로 오게 됨 - 당시 학익동의 주택들은 오두막 수준으로 매우 열악했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환경이었음	00:00:00 ~ 00:01:41	
2. 학익동 거주지 근처의 풍경, 동양화학 인근 마을에서의 생활 모습 - 당시 학익동은 도랑과 개천 주변에 집을 지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음 - 인하대학교가 건설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기 시작함 - 초기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서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퍼서 사용했음 - 공동 수도가 생겨서 물을 공급 받았음 - 난방은 연탄을 사용했고, 제재소에서 주운 나무껍질이나 찌꺼기로 불을 살리기도 했음 - 거주지는 조선철강공업 근처 언덕길 옆이었음 - 당시 집의 구조는 뱃머리 모양이었음 - 3년 후 인하대학이 보이는 곳에 지어진 국민주택을 구매해 이사함.	00:01:42 ~ 00:08:54	
3. 남편(김성호)이 다녔던 카바이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 - 카바이트 공장은 동양화학 계열로, 현재 인하대학교 기숙사 자리였음 - 남편 김성호씨는 카바이트 공장에서 근무하여, 종종 카바이트를 가져와 밤에 불을 밝히기도 했음 - 공장은 소음이 심하고, 약취도 심했음 - 남편의 급여는 잔업까지 하면 최대 3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었음 -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천원, 집 한 채가 5만원 정도였음 - 현재 삶을 가시밭을 지나 도달한 인생의 꽃자리라고 표현함	00:08:55 ~ 00:14:58	
4. 학익동에서 살았던 집, 집의 구조와 살림살이 장만에 대한 이야기 - 맨손으로 인천에와서 살림살이를 장만하였음 - 구술자도 사무실 청소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됨 - 뱃머리집의 구조와 루뽕집에 대한 설명을 하심 - 당시엔 그래도 풍족하게 2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했으나 슬레이트 집이라 겨울에 무척 추웠음	00:14:59 ~ 00:18:32	



5. 남편(김성호)이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 10년 정도 남편이 근무했던 카바이트 공장, 공장 폐쇄 시까지 일함	00:18:33	
- 카바이트 공장 이후 LPG 가스 회사에서 근무, 국민연금 가입	~	
- 퇴직후 경비직으로 일하다가 암과, 뇌경색으로 별세	00:21:23	
- 자녀들이 자리잡고, 손주들이 태어나 잘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6. 여성 노동자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 당시 생활사 이야기		
- 용현동 소재, 기름통(드럼통)을 씻는 곳에서 근무함	00:21:24	
- 학익동 소재, 농약공장에서 라벨 붙이는 일을 함	~	
- 거주지 인근 가게에서 생필품을 외상으로 구매 후, 월급날 갚음	00:27:55	
- 동네에는 국숫집, 연탄집, 세탁소, 충남상회 등 다양한 구멍가게가 있었음		
- 이자 놀이를 하는 쌀집 아주머니에게 신용을 얻어 친척들을 도와줌		
7. 집을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살림을 불렀던 에피소드		
- 학익동 국민주택 49평을 130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인근에 택시회사가 들어와 소음 문제가 발생함	00:27:56	
- 15년 거주 후 1,500만원에 택시회사에 판매함	~	
- 국민주택 매도 후 가좌동과 안동집을 각각 구매함	00:33:21	
- 가좌동에서 동암역 인근으로 이사 했다가 현재 사는 집에 정착함		
-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고, 시세 상승 후 매도 하는 방식으로 살림을 불렀음		
8. 동양화학 인근 공장에 대한 기억		
- 밤새 두부를 만들어 소음이 발생하는 두부 공장이 있었음	00:33:22	
- 담배공장, 태광산업, 동양화학, 나무 제재소, 벽돌 공장, 철강 공장 등 주변에 공장이 많았음	~	
- 학익동에는 공장이 많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면 돈은 벌기 좋은 환경이었음	00:35:55	
9. 자녀 양육 시절의 에피소드		
- 카바이트에서 근무했던 남편 덕분에, 새인천 풀장을 무료로 이용하였음	00:35:56	
- 여름마다 아이들과 함께 풀장으로 나들이 갔음	~	
- 자녀들이 학익국민학교 재학 중일 때, 문학산으로 소풍을 자주감.	00:38:15	
- 자녀들이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당시 문화였음(구술자의 친정아버지도 안동에서 올라오심)		
10. 동양화학이 지역 주민에게 준 영향에 대한 생각	00:3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양화학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 이자 생계의 기반이었음- 인근 공장으로 인해 환경이 나빴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음- 동양화학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음	~ 00:39:34	
11.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	00:3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일 외에도 부업으로 뜨개질을 하며 생계에 보탬- 학익동 뜨개질 조장으로 활동함- 동인천, 신포동에서 외국 수출용 실을 받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작업을 지시했음	~ 00:45:50	
12.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 지금까지 유지하는 친목회 모임	00:4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간 지속하고 있는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의 친목회- 안 가본데 없이 다 갔던 친목회 여행	~ 00:47:43	
13. 남편의 술자리, 옛 서창동 땅에 대한 기억, 집을 넓히기 위해 힘들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00:4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이 아닌 외부에서 즐겼던 남편의 저녁 회식 문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보리 사탕 하나씩은 사줬음- 티셔츠 하나, 신발 한 켤레로 7~8년을 사용하는 절약적인 생활-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5채의 집을 마련함- 당시 서창동은 허허벌판이었음- 자녀 교육과 집 마련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미뤘던 삶에 대해 후회함	~ 00:57:38	
14. 인터뷰 소회 및 안동 식혜와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	00:5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 창피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구술자- 토마토 잼(주스)을 직접 만들어 내어줌- 안동 식혜에 대한 설명을 함- 병원에 돈 줄 바야바 과일을 사서 주변과 나눠 먹는게 낫다고 하는 구술자의 철학- 무릎 연골이 많아 통증이 심해 외출을 멀리하는 하지 못함- 청력 저하로 국가 보조금 수령중임	~ 01:07:56	
15. 슬기롭게 지냈던 결혼 생활,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줬던 구술자의 시간과 노력	01:0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며 살아옴- 조카네를 눈 한번 흘기지 않고, 친 자식처럼 돌봄- 머리 좋은 조카들은 공장 대시 학교로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	~ 01:21:34	



<p>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 한 방에서 9명 가까이 생활한 적도 있어서 정부미 쌀 7말을 삶아내며 대가족을 먹이고 재움 - 자신의 젊은은 없어졌지만, 대신 자녀들과 조카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함 		
<p>16.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술자의 이야기, 뜨개질 조장 시절의 에피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부터 뜨개질과 자수를 시작함 - 자수 작품은 여름철 시원한 덧개나 장식용으로 사용함 - 남편에게 직접 떠 준 옷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음 - 과거에는 버스 대신 봉고차를 타고 동인천으로 이동했음 -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면 버스기사님께 꼭 나눠드리고 옴 	<p>01:21:35 ~ 01:29:41</p>	
<p>17.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 결혼식, 대학교 시절, 군대 시절 등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김 - 학익국민학교, 서인천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 자녀들의 학창시절을 따라다니며 기록함 - 카바이트 공장 동료들과의 야유회, 친목계원들과의 제주도 여행 사진에 대한 설명 	<p>01:29:42 ~ 01:47:24</p>	
<p>공개여부</p>	<p><input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 공개</p>	
<p>활용동의</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 함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동의</p>	
<p>특이사항</p>		